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

-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 -

이 복 임*

(e-mail: danan01@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국민전쟁 - 전쟁의 미화
 3. 조국방위전쟁 - 전쟁의 정당화
 4. 제국주의전쟁 - 전쟁의 필연성
 5. 맺음말
-

1. 머리말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기 막바지 무렵인 1968년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연재되기 시작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96, 이하 “시바”로 칭함)의 『언덕위의 구름(이하 『언덕』으로 칭함)』은 메이지(明治)기에 발발한 청일·러일전쟁(1894·1904)이 주요 배경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당시 육군과 해군에서 활약했던 아키야마형제(秋山好古, 秋山真之)와 문학자인 마사오카 시키(政岡子規;1867-1902)를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국가가 성립한 배경과 제국주의국가로 변모되어가는 모습이 시바의 독자적인 문체로 생동감있게 서술되고 있다.

시바문학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근대사에서 성공사례의 정점으로 러일전쟁이 있고 실패사례의 정점으로는 태평양전쟁(1941-45)이 있다고 하는 점이

* 한남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다. 하지만, 러일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게 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 더구나 시바는 『언덕』에서 청일전쟁을 ‘국민전쟁’으로 표현하며 조선을 영유하기 위한 침략전쟁인 것을 미화시키고 있다. 또한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조국방위전쟁’으로 운운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을 ‘지정학(Geopolitics)’적인 관점에서 제국주의국가론을 펼치며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시바가 작품에서 청일·러일전쟁을 국민전쟁이나 조국방위전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선행논문에서 다루어져 왔다.²⁾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두 전쟁에 대해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의 침략전쟁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전쟁의 쟁점이 되었던 조선의 문제를 지리적 위치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시바의 논리는 조선인의 주체성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되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국영방송인 NHK에서는 『언덕』을 대하드라마로 기획하여 방영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여파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⁴⁾

『언덕』과 같은 역사소설은 역사서와 달리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공하여 구성된다. 그 가공된 스토리를 작자의 목적의식에 따라 완성하는 것이 역사소설이고 그것이 독자적인 역사관으로 표출되어 작자의 고유한 역사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바가 작품에서 한일 양국 간 미묘한 관계가 얽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청일·러일전쟁을 ‘국민전쟁’과 ‘방위전쟁’으로 표현하며 이 시기의 상황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언덕』을 중심으로 시바의 청일·러일전쟁론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근원적 의도와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1) 山田朗(2010.2) 「『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上) 『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 p.60.

2) 『언덕위의 구름』에 대한 선행논문으로는 金景鎬(2009.1) 「일본 대중문학 속에서 왜곡되는 <조선>-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작품을 중심으로」 『日本学研究』와 金용범(2010.2) 「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한국논단』이 있다. 여기에서는 모두 침략전쟁인 청일·러일전쟁이 정당화되고 있고 조선에 대한 왜곡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3) 「日清戦争は朝鮮を日本の支配下に置くことを目的とした侵略戦争であった。」(原田敬一(2007) 『日清・日露戦争』, 岩波新書, p.52.), 「この地政学的地理的アプローチというのは、韓国人の主体性を無視した書き方である。」(中村政則(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岩波書店, p.24.).

4) NHK에서는 『언덕위의 구름』을 스페셜 대하드라마로 기획하여 3년에 걸쳐 방영할 계획이다. 이미 2009년과 2010년 11,12월에 제1부와 제2부가 방영되었고 2011년 12월에 제3부가 예정되어 있다.

2. 국민전쟁 - 전쟁의 미화

『언덕』은 작품모두에서 “정말로 작은 나라가 개화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⁵⁾로 시작하고 있다. 시바는 근대초기국가 메이지 일본을 소국(小國)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열강들과의 사이에서 일본의 위치를 한층 극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국가체제가 미비했다는 상황을 함축시키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이전시기까지 무사에 의한 계급사회이었다. 그때의 일본인들은 인권을 무시당한 채 자신이 속해있는 번(藩)에 충성만을 강요당하고 있었지만, 메이지기는 범람하는 서구문명 속에서 ‘국가’의 의미를 알게 해준 시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국가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자는 아래에 제시하는 인용문에서와 같이 장남감과 같은 소국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이 허술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 개개인은 ‘국가’라는 자각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가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고 믿고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① 일본은 소위 장남감 같은 소국으로 국가의 여러 기관도 미흡하고, 그 여러 기관에 속해있는 부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 태만하면 국력신장이 하루 늦어진다는 긴장감 속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이 실제로 그 부분들의 운명에 달려있었다. (二, 渡米, 34-35)⁶⁾

② 일본은 지금 국민적 열기 속에서 해군건설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해군건설에 대해서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기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 (중략) 그 무관심한 서민계급이 전시에서는 하사관과 수병으로 된다. 그들에게 어느 만큼의 전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二, 風雲, 302)

위의 인용문 ①과 ②번에서 알 수 있듯이 시바가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이룩한 국가, 곧 국민국가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메이지기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1835-1901)의 “일신이 서야 일국이 선다(一身立ち一国立つ, 『学問のすず

5) 「まことに小さな国が、開化期をむかえようとしている。」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 (株)文芸春秋, 新装版, p.7.)

6) 본 논문은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六)>를 텍스트로 하며 이하, 괄호 안에 (단행본 권수, 소재목, 페이지)순으로 표기함.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め』)”라는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개인의 입신출세가 그대로 한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개인과 국가의 양립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메이지국가란 개인이 국가에 전념하면 장래가 보장된다고 공언할 수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시바는 ①의 문장에서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이 국가의 운명에 걸려있었다는 묘사를 하며 근처에는 후쿠자와 사상의 내재와 함께 국민이 국가의 존망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저력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어지는 ②의 인용문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국민의식을 메이지기 해군창설과 관련하여 묘사하며 아래로부터 성립한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해군을 창설하였던 러시아의 서민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다는 서술로 국가가 위급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각할 수 있었던 전의(戰意)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작품에서 시바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러일전쟁 시 일본해군에서 활약한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1868-1918)를 등장시키고 있다. 사네유키는 몰락무사집안의 자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전쟁당시 일본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도고 헤이하치로⁸⁾의 하급사관이 되었고 도고의 ‘두뇌역할자’로 묘사되는 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다.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시바는 메이지초기의 일본국가는 근대국가형성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과 여기에 사네유키와 같은 서민층이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시 시대상황의 시스템차이를 러시아의 해군건설과 대립시켜서 보다 능동적이었던 메이지기 일본인의 국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바는 근대초기국가인 메이지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인과 일부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러시아의 해군을 비교분석하는 이분법적 서술로 일본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반국민들이 참여하여 형성된 국가야말로 진정한 국민국가로서 전쟁이라는 국가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의 충성심은 당연한 결과로써 발휘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작자는 메이지국가에 대한 일본인의 충성심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표현하며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③ 메이지국가는 일본서민이 국가라는 것에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집

7) 鷲田小弥太(2004.10)「司馬史觀が独り歩きを始めている」『サピオ(Sapio)』, 小学館, p.21.

8)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1848-1934)는 일본 메이지기의 해군 제독이다. 청일전쟁 때 나니와 함장으로서 청국군함 고승(高陞)을 격침시켰고 러일전쟁 때는 일본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 동해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정자전법으로 격파했다. 『언덕위의 구름』에서는 이 ‘정자전법’도 사네유키에 의해서 계발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단적 감동의 시대였고, 말하자면 국가 그 자체가 강렬한 종교적 대상으로 되었다. 203고지에서 일본군 병사가 경탄할만한 용감성을 발휘한 근거에는 이러한 역사적 정신과 사정이 깃들여져 있었다. (四, 二〇三高地, 123)

일본의 메이지기 이전시대는 무가사회로서 약 700년간 이어져 왔다.⁹⁾ 센고쿠시대(戰國時代, 1467-1573)를 거쳐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의 병사는 모두 직업적인 것이었고 서민들은 ‘국가’의 개념이 없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인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라는 인식이 차츰 확산되어 서민들은 국가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영향으로 애국심이 형성되었다.¹⁰⁾ 위 문장에서 작자는 메이지기의 일반서민이 국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대를 집단적 감동의 시대라고 서술하고 있고 ‘강렬한 종교적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마치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라도 된 듯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203고지¹¹⁾에서 러·일간 전투의 예를 묘사하면서 이러한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일본 병사의 용감함이 러일전쟁에는 깃들여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이지시대 ‘국가’의 의미는 봉건적 국가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으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메이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었고, 이런 국민적 흥분이 절정에 달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바는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이때의 병사들은 국가의 위기를 구한다는 사명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서술로 청일전쟁을 국민전쟁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아래의 문장과 같이 국민들의 예금증가로 인한 물가고 억제를 예로 들면서 메이지기의 일본을 국민국가로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④ 물가고라는 전시의 악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대장성의 정책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증세였다. (중략)

이 전쟁(러일전쟁)이 민족적인 실감으로서 조국전쟁이었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게다가 국민이 내채(内債)를 꺼안아 예금이 증가한 것도 조국전쟁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물가고를 억누르는 힘으로 되었다.

(五, 奉天へ, 218)

9) 무사사회란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1147-99)가 1192년 가마쿠라(鎌倉, 현재 가나가와현(神奈川)가마쿠라시)에 창설한 무가정권에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1543-1616)가 1603년 에도(江戸, 지금의 동경)에 창설한 무가정권이 메이지유신에 의해 멸망한 1868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10) 北影雄幸(2005) 『「坂の上の雲」の正しい読み方』, 光人社, p.342.

11) 203고지는 중국동부 요동반도(遼東半島)남단에 위치한 여순(旅順)에 있는 구렁이다. 러일전쟁 시는 러시아해군의 기지였던 여순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다.

일본은 메이지기에 급속한 근대국가건설과 과도한 전쟁으로 인해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시바는 위 문장과 같이 국가의 재정에 국민 개개인의 예금증가로 물가고를 억제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당시의 전쟁은 국민전체가 참여한 조국전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물가고를 억제했던 것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었다. 당시 일본은행 부총재였던 다카하시 코레키요(高橋是清;1854-1936)에 의해 러일전쟁에 필요한 전비와 전쟁 후 부흥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왔다.¹²⁾ 실질적으로 소국으로 표현되는 근대초기에 국민들의 예금으로 엄청난 전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웠지만, 시바는 국가의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민족성을 예로 들어 국민국가로서 메이지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어난 청일·러일전쟁을 국민전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지만, 이후 쇼와기의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는 서술로 두 시기의 차별성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⑤ 쇼와기에 농후한 형태로 성립한 ‘천황의 군대’라는 헌법상의 사상은 요시후루의 시대에는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다분히 ‘국민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편이 짙었다. (중략)

요시후루에 의하면 일본군은 국민군이였다. 러시아와 같이 극동의 황제에 대한 사적야망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일본 측은 조국방위전쟁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위기를 자각하여 총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병사를 가지고도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는 의미인 것 같았다.

(六, 雨の坂, 449)

시바의 문학작품에는 ‘밝은 메이지와 어두운 쇼와(昭和, 1945년까지)’라는 언설로 대부분 메이지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 문장에서도 쇼와기의 군대를 ‘천황의 군대’, 메이지기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는 서술로 자신의 주관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런 서술방법은 ‘메이지는 리얼리즘의 시대이고 쇼와는 좌우 이데올로기시대’라고 표현하며 두 시기를 흑과 백으로 논하는 이항대립적인 역사관에서 비롯되고 있다.¹³⁾ 결국 시바는 메이지기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이 러일전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점은 메이지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만 바라보는 역사관으로 뒤에 숨겨진 사실은 간과

12) 앞의 논문, 山田朗(2010.2) 「『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眞実(上)」 『歴史地理教育』, p.65.

13) 「明治は、リアリズムの時代でした。(中略) 昭和には一昭和二十年までですが一リアリズムがなかったのです。左右のイデオロギーが充満して国家や社会をふりまわっていた時代でした。」
(司馬遼太郎(1994) 『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되고 있다.¹⁴⁾ 러일전쟁은 일본 측에서 본다면 주체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으켰던 전쟁으로 보여 지지만,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라는 구조 안에서 분기한 전쟁이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당시의 국제적인 정치적 역학관계가 배제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민국가, 국민군대, 국민전쟁이라는 표현만으로 메이지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시바의 의도는 이후 1945년 패전까지 만연해 있던 황국사관을 부정하고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사회는 민족사관, 또는 국민사관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 문장에서 황제의 사적야망을 위해 전쟁에 임했던 러시아군대의 실패를 쇼와기 군대와 동일시하고 메이지기의 군대는 국민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의 위기에 국민모두가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조국전쟁’이자 ‘방위전쟁’으로서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갖고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결과만을 중시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바는 20세기 초 개국당시 소국에 불과했던 일본은 모든 면이 미비하고 열악한 상태이었지만, 일본인들은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앞장섰다고 하는 국민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국민성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발휘되어 대국인 청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저력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국가를 국민국가로 찬양하며 이때 발발한 청일·러일전쟁을 온 국민이 참여한 국민전쟁으로 표현하려는 작자의 목적의식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렇듯 일본근대사에서 침략전쟁으로 인식되어 있는 청일·러일전쟁을 당시의 국민성만을 강조하여 조국전쟁 또는 국민전쟁으로써 미화시키고 있는 것은 외적요소가 배제된 시바의 내적요소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면에 일본과 가장 침예한 관계에 있었던 조선의 문제는 뒤로한 채 메이지와 쇼와라는 시대적 분리만으로 메이지기를 국민사관으로 충만한 시기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후 쇼와기 전쟁이 패배로 물들어진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려는 시바의 주관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국방위전쟁 - 전쟁의 정당화

청일·러일전쟁을 국민전쟁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시바의 주장은 국민을 전쟁으로 몰고 간 일본국의 행태와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

14) 本多勝一(2010.3) 「司馬遼太郎の『坂の上の雲』と朝鮮半島」 『週刊金曜日』, 金曜日, p.37.

15) 山田朗(2010.3) 「『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下)」 『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 p.62.

는 언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역사학에서는 청일전쟁이 천황제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최초의 식민지 획득전쟁이고 조선과 중국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된 천황제 국가의 침략정책의 결말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⁶⁾ 하지만, 시바는 작품에서 이러한 논리는 진보적 학자의 정의라고 일축하고, 청일전쟁 후 10년 뒤에 일어난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야욕에 따른 자국보호를 위한 ‘조국방위전쟁’이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¹⁷⁾ 그 의도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확실히 짐작할 수 있는데, 작자가 화자(語り手)로 등장하는 문체로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주로 ‘여담이지만(余談ながら)’으로 시작하는 ‘작자등장기법’은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서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① 여담이지만, 나는 러일전쟁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어느 시점에서 쓰려고 한다. 작은, 이라고 말한다면 메이지초기의 일본만큼 작은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밖에 없었고 인재라고 하면 300년 독서계급이었던 옛 사족밖에 없었다. 이 작은, 세계의 한조각 시골과 같은 나라가 처음으로 유럽문명국과 피의 대결을 했던 것이 러일전쟁이다. 그 대결에 겨우 승리했다.

(一, 真之, 68)

앞서 작품도입부에서 메이지기 일본을 ‘소국’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위 인용문에서도 ‘작은 나라’로 서술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작은 조각과 같은 ‘미개한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유럽문명국이라는 서술로 일본과 러시아를 미개국과 문명국으로서 국가발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했듯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국의 저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국과 소국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서술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키가와 나쓰오(関川夏央)는 이러한 문장에 대해 “시바가 말하고자했던 것은 19세기적인 빈곤하지만 참가자가 모두 페어(fair)정신으로 충만했던 시대의 역사라는 점과 그것이 불공정한 20세기적 정신으로 계속 단죄되는 것에 의의를 주창하고 싶었던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¹⁹⁾ 하지만, 19세기는 시바가

16) 「歴史学では、日清戦争を「天皇制日本の帝国主義による最初の植民地獲得戦争である」「朝鮮と中国に対し、長期に準備された天皇制国家の侵略政策の結末である」とする立場が有力であると、司馬氏はこれを「いわゆる進歩的学者たち」の定義とする。」

(牧俊太郎(2009)『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近代文芸社, p.16.)

17) 「日清戦争は祖国防衛戦争であり、であればこそ民族をあげて戦いぬきつつあるが、(中略) 要するにロシアの侵略主義をふせぐべく立ちあがりながら、」(五, 奉天へ, 243)

18) 이복임(2009.5)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독창적 역사기술방법-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작자등장기법 -」 『일본문화학보』 제4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참조.

19) 「司馬さんが描きたかったのは、十九世紀的、貧しいけれど参加者がみなフェアであろうとつとめた時代の歴史

생각했던 것과 같이 공평한 시대는 아니었다. 1840년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아편전쟁(阿片戦争, 1840-42)을 일으켰고 이후 인도를 직접 지배하에 두었고 미얀마, 말레이반도, 필리핀 등의 국가를 식민지화했다. 미국 또한 19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가 서로 다투어 분할경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19세기는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활개를 쳤던 시대였고 일본 또한 제국시대의 구미열강과 같이 영토 확장을 겨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때 최초로 일본의 대상으로 되었던 나라가 조선이었고 그 방법은 다른 선진 제국주의국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강인한 것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시바는 러일전쟁을 제국주의시대의 한 현상이라고 서술하며 그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싸웠던 것으로 ‘방위전’이라는 표현에 이르고 있다.

② 러일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인 제국주의시대의 한 현상인 것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현상 안에서 일본 측의 입장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자가 있는 힘껏 싸내려고 했던 방위전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二, 開戦へ, 360)

③ 러시아는 후세의 사가(史家)가 뭐라고 변명하든, 극동에 대해 지나치게 농후 할 정도로 침략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중략)

훗날의 상황이 생각해버린 시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태도에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러시아는 일본을 의식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일본은 궁지에 몰린 쥐가 되었다. 사력을 다해 고양이를 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二, 開戦へ, 355,357)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제국시대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서술은 러일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자의 주관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일본인들이 메이지초기부터 군국주의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시바가 이후 침략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숙명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자 다나카 아키라(田中彰)는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은 터부시되어왔지만, 상황 다음으로는 현실의 역사로서 전개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료(史料)에서 밝혀낼 수 있는 한도에서 이것을 시야에 두는 것은 역사서술에 필

だった。それが、アンフェアな二十世紀的精神で断罪され続けることに意義を唱えたかったのでしょう。」

(関川夏央(2010)『NHKスペシャルドラマ・ガイド「坂の上の雲」第一部』, 日本放送出版協会)

20) 中塚明 他(2010)『「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日清戦争の虚構と真実, 高文研, pp.11-12.

요한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미발(未發)의 가능성’이라고 했다.²¹⁾ 따라서 시바가 당시는 제국주의의 시대였으므로 침략의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내국적인 입장에서 자국보호를 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메이지초기를 시종일관 ‘소국’이라고 지칭했던 것과 같이 당시 일본국이 욕심을 버리고 ‘소국주의’를 지향했다면 군국주의로 나아갈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③의 문장과 같이 작자는 청일전쟁 후 러시아의 침략의 도에 의해 일본을 의식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열강에 의해 막다른 곳으로 몰린 쥐와 같은 심정으로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었다는 해학적인 서술로 당시의 상황을 극대화시키며 전쟁의 타당성내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시바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 청일전쟁 후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④ 러일전쟁은 원래 조선반도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 때문에 이후 조선에 4개 사단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가서 반도를 방어한 후에는 외교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三, 沙河, 354)

⑤ 청일전쟁 후, 러시아를 주창국(主唱國)으로 하는 삼국간섭이 있어 일본은 그 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여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청국에서 반환했다. 러시아는 이후 이곳을 청국으로부터 강제로 조차(租借)하고 여순(旅順)에 군항을 만들고 대련(大連)에 총독부를 두고, 게다가 남만주철도를 만들어 영토화하여 조선으로 남하하려고 했다. 일본의 여론은 격앙되어 와신상담(臥薪嘗胆)이라는 말이 유행 하고 육해군은 러일전쟁의 준비를 마쳤다. 그 후 10년이다. 10년의 한스러운 일이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四, 二〇三高地, 208)

18세기 러시아는 당시 북부해안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바다와 강이 모두 얼어버려 외국과의 교류에 문제가 많았다. 그 때문에 부동항(否凍港)을 찾아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발칸반도의 흑해를 둘러싸고 크림전쟁(1853-56)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크게 패하여 지중해로의 진출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베리아를 넘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세기 청국과 영국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획득하고 이곳을 블라디보스토크(동방의 지배자)로 명명하여 항구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위 인용문은 러시아가 이후 조선에까지 진출을 계획하여 일본에 까지 세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서술로 시바는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곧 일본을 방위하

21) 앞의 책 「牧俊太郎(2009) 『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p.29.」에서 재인용.

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실증적 예로서 이어지는 인용문에서와 같이 청일전쟁 후 러시아를 비롯한 삼국간섭(三國干涉)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삼국간섭이란 청일전쟁 승리 후 일본이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영유(領有)하는 것에 반대하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공동간섭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럽 열강에도 청국을 분할하는 단서가 되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가 앞을 다투어 군대를 파견하여 조차지(租借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러시아는 만주에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랴오둥반도를 조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근거로 작자는 러시아가 청국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에 군항과 총독부를 두고 남만주철도를 만들어 조선으로 남하하려고 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러일전쟁은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에 일본이 조선을 방어하지 않으면 자국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방위를 위해 분기한 전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국에서 1900년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이 있는 후 러시아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적극 추진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관심은 일본의 만주진출 저지에 있었고 조선을 침공하는데 그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²²⁾ 하지만, 일본은 재빠르게 ‘만·한교환론’을 제시하여 러시아에 만주경영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조선에서 우월권을 확보하려고 했다.²³⁾ 따라서 시바의 주장과 같이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가 조선침략이라는 위압적인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일본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을 방어하는 것이 일본을 방위한다는 시바의 논리는 메이지기 3대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1838-1922)가 1890년 제1회 제국회의에서 발표한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건대, 국가독립자위의 길에 두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주권선을 방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익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주권선이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고, 이익선이란 주권선을 안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²⁴⁾

22) 김용범(2010.2) 「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한국논단』, p.131.

23) 최석완 외(2009) 『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103.

24) 「『蓋シ国家独立自衛ノ道ニ二途アリ。第一ニ主權線ヲ主禦スルコト、第二ニハ利益線ヲ保護スルコトデアリ。ソノ主權線トハ国ノ疆域ヲ謂ヒ、利益線トハ主權線の安危、密接ノ関係アル区域ヲ申シタノデアリ。』。すなわち主權線は国境を指し、利益線は朝鮮を指し、日本が他国(ロシア)からの侵略・支配を阻止するためには、朝鮮半島を支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あった。」 (앞의 책, 中村政則(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p.7, 재인용)

이 문장은 1890년 12월에 야마가타총리가 제1제국의회에서 연설한 군비확충 의견서 내용으로 마사노리가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주권선이란 ‘국경’을 의미하고 이익선이란 ‘조선반도’를 의미하고 있다. 즉, 주권선을 지키기 위한 이익선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내각의 정책(외교정략론)으로, 이후 아시아(조선, 중국)에 대한 외교방침을 확대하여 일본정부의 팽창주의를 강화시켰다. 따라서 일본은 이때부터 청국과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 후 자국의 영토보존을 위하여 조선반도를 방어해야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조선을 발판으로 열강의 대열로 들어서기 위한 야욕이 그대로 표출된 야마가타의 정책에 의해 조선침략을 결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작자의 목적의식에 따라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은폐되고 주장하고자 하는 전쟁의 정당성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바의 자국중심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국주의전쟁 - 전쟁의 필연성

시바는 청일·러일전쟁을 논할 때 당시 조선이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아래에 제시하는 인용문과 같이 유럽에 있어서의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분쟁인 크림전쟁과 아시아에 있어서 베트남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국과 프랑스가 격돌하였던 청불전쟁(중불전쟁, 1884-85)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① 이제 전쟁의 원인에 접촉해야만 한다.

원인은 조선에 있다고 해도 한국과 한국인에게 죄가 없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존재에 있다.

원래, 반도국가라는 것은 유지가 어렵다. 이점에 있어서 유럽의 발칸반도나 아시아의 베트남이 증명해주고 있고, 마침 이 청일전쟁 직전에 베트남에 아주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청국이 베트남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이 나라를 식민지로 하려고 했던 프랑스와 분쟁한 결과 청불전쟁이 일어났고 프랑스해군은 청국 푸젠함대를 전멸시켰고 육군에서도 청국은 연전연패했다. 1884년의 일이다. (중략)

일본은 보다 절실했다. 절실한 것은 조선에 대한 생각이다. 조선을 영유하려고 했다기보다 조선을 다른 열강에게 빼앗길 경우 일본의 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一, 日清戰爭, 342-343)

시바는 발칸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싸웠던 크림전쟁이나 베트남에서의 패권을 다투던 청국과 프랑스 간 청불전쟁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일·러일전쟁의 원인을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반도국가관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논리는 지정학적(지리적)접근법이라는 면에서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2차 대전 시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국가의 지도자들이 폴란드 등 인근제국(諸國)을 침략했을 때 합리화하려는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체성은 배제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地政學)이란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가정책으로 유기체로서의 국가생활의 장(場) 즉, 정치조직의 영역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과학용어로서는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국가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자연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되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²⁶⁾ 앞서 서술했듯이 일본은 1890년 야마가타의 ‘외교정략론’에 의해 조선의 지배를 계속하여 추진해왔다. 그 때문에 이후 4년 뒤에 치러진 청일전쟁은 시바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기위한 목적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시바는 이 지정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생명선으로써 필요했던 조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② 일본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본방위의 생명선으로써 조선반도를 중요시했다. 이 조선반도를 러, 청의 세력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문제가 쟁점이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二, 列強, 171)

③ 조선이 일본의 국가적 이익과의 접점이다. (중략)

다른 열강이 중국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은 조선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가소롭게도 유신 후 30여년에는 아직 공업력은 유치한 단계에 있었고 팔수 있는 상품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법만은 유럽 흉내를 내려고 했다. 즉, 그것을 손쉬운 조선에서 하려고 했다. 그 흉내를 내다가보면 마침내 강국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문명 단계에서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으로 되었던 것이다. (二, 外交, 263)

위의 두 문장을 보면 시바는 근대초기국가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해나가기 위

25) 高橋誠一郎(2005)『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p.20.

26) 曾村保信(1984)『地政学入門 外交戦略の政治学』, 中公文庫.

해서는 조선의 확보가 중요했다는 서술을 첨가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 후 열강들은 청국을 조차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은 열강과 대등한 위치를 추진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였고 그 발판으로 조선이 통로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기의 국민국가건설에 이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조선반도가 생명선으로써 필요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다른 열강들이 그렇게 했듯이 일본 또한 외적요소에서 야욕을 충족하려고 했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시바는 소국으로 표현되는 미개국가가 문명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전쟁의 필연성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러시아가 부동항 확보를 위해 아시아국가로 진격해 왔던 것도 일본이 부국강병을 목표로 조선을 국가의 이익선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당시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였다는 서술로써 국가의 문명론을 제시하고 있다.

④ 조선에 국책회사를 진출시켜 거기에 모든 사업을 일으켜 산업, 도시건설, 철도·항만건설 등에 러시아자본을 모조리 쏟아 부으면, 그것만으로 조선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후일 기회가 있다면 일본세력을 조선에서부터 구축(驅逐)할 수가 있을 것이다. (二, 列強, 207)

⑤ 일본이 조선을 그토록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역사의 단계가 지난 오늘날, 어쨌건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우스꽝스럽게도 보인다. 문제를 뒤집어 본질을 들추어낸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제국주의는 각도를 같이하고 있다. 러일 쟁방이 대영제국을 모델로 하고 있듯이 그러한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만주를 탐내고 식민지가 없는 일본은 조선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다.

(二, 列強, 207)

④의 인용문은 작품에 등장했던 한 러시아 대위의 말을 인용하여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측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조선에 산업을 부흥시켜서 국력을 신장시키면 일본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는 표현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⑤의 인용문에서는 20세기 초 급변하는 동아시아정세 속에서 러·일 양국이 문명세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영국을 모델로 하였다는 묘사도 하고 있다. 당시 국가들은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 그 때문에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은 조선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식민지획득이 국가가 발전해나가기 위한 현상이라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생명선으로써 조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국가의 본질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서술로 자국합리화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바사관에 대해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는 “시바 료타로는 러일전쟁으로 20세기가 개막되었다고 말하지만, 러일전쟁이야말로 19세기 일본이 필사적으로 추구해간 정치적 리얼리즘의 정점인 동시에 20세기 개막 후에 일본의 단점을 최고조로 보여준 ‘환상시대의 비애’의 출발점으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평하고 있다.²⁷⁾ 실제적으로 일본은 두 전쟁의 승리로 인한 막대한 배상금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다.²⁸⁾ 따라서 시바의 이러한 문장은 일본이 부국강병을 위한 식민지획득으로써 전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자는 청일·러일전쟁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전쟁의 성격과 비교하며 당시의 조선은 반도라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전술했듯이 시바의 자국합리화적인 역사관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국가의 본질성에 대한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바는 청일·러일전쟁의 원인을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모색하며 두 전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당시의 일본국이 근대 산업국가(제국주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에 불과했다는 서술로 전쟁의 필연성을 내세우는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역사관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시바의 『언덕위의 구름』은 러일전쟁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전후의 일본사회가 패전의식과 허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메이지유신 후 성립된 초기근대국가를 소국으로 표현하며 청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일본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는 당시 고도

27) 「司馬遼太郎は日露戦争で日本の二十世紀が開幕したと語る。日露戦争こそは、十九世紀の日本が必死に追い求めてきた政治リアリズムの頂点であるとともに、二十世紀開幕後に日本の短所を極限まで顕わにする「幻想の時代の悲哀」の出発点になったと考えるのだ。」

(山内昌之(2009.12)「司馬さんはなぜ『坂の上の雲』を書いたのか」『文芸春秋』, p.278.)

28) 「日本の産業革命は、つぎの二つの戦争の影響で、すすむようになりました。日清戦争と、日露戦争です。朝鮮半島の支配をめぐる争いでした。このころ、日本は、やすい原料と、工業製品をうる市場を海外にもとめていたのです。戦争の結果、台湾(1895年)と、その後、韓国(1910年)も植民地になりました。」
(東京外国語大学(1995)『留学生のための日本史』, (株)山川出版社, pp.124-125.)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부합된 것으로 한층 일본인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바로 여기에 시바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써 침략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청일·러일전쟁을 나라의 존망을 위해 온 국민이 참여했던 ‘국민전쟁’이라는 서술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러시아의 남침에 조선을 방어하는 것이 일본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임을 주장하며 러일전쟁을 자국보호를 위한 ‘방위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선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며 당시상황에 대해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술로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시바가 청일·러일전쟁의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으로 얼룩진 일본근대국가를 패전국가라는 인식에서 승전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언덕』을 통해 영광스런 메이지국가를 찬양하고 메이지일본인의 자긍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전의 황국사관을 국민사관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바사관은 청년시절을 전쟁 속에서 보내야했던 소와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일·러일전쟁을 메이지라는 한 시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동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제적인 정치역학 안에서의 열강과 일본의 관계, 또는 국제적인 흐름의 상태가 희박하게 되어 버렸던 것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전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조선의 문제를 방위전쟁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국중심적인 역사관으로써 일본적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감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최근에 일본사회는 이러한 시바사관이 내재된 작품을 영상화하여 전파하고 있고, 교육계의 우익보수파들이 사관개혁을 위하여 시바의 역사관을 역사교과서 개편운동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²⁹⁾ 이런 현상에 대해 마사노리는 시바를 논하는 것은 일본문화를 논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바를 가미사마(神様)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³⁰⁾ 마키 순타로(牧俊太郎) 또한 시바가 이 작품을 영상물로 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원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TV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³¹⁾ 이렇듯 청일·러일전쟁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9) 앞의 논문, 김용범(2010.2) 「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p.117.

30) 앞의 책, 中村政則(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p.101.

31) 앞의 책, 牧俊太郎(2009) 『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p.155.

【参考文献】

- 최석완 외(2009) 『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103.
- 関川夏央(2010) 『NHKスペシャルドラマ・ガイド「坂の上の雲」第一部』, 日本放送出版協会
- 中塚明 他(2010) 『「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日清戦争の虚構と真実, 高文研, pp.11-12.
- 中村政則(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岩波書店, pp.7,24,101.
- 牧俊太郎(2009) 『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近代文芸社, pp.16,29,155.
- 原田敬一(2007) 『日清・日露戦争』, 岩波新書, p.52.
- 北影雄幸(2005) 『「坂の上の雲」の正しい読み方』, 光人社, p.342.
- 高橋誠一郎(2005) 『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p.20.
- 司馬遼太郎(2005) 『坂の上の雲』(一)~(六), (株)文芸春秋(新装版).
- _____ (1994) 『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 東京外国語大学(1995) 『留学生のための日本史』, (株)山川出版社, pp.124-125.
- 曾村保信(1984) 『地政学入門 外交戦略の政治学』, 中公文庫.
- 김용범(2010.2) 「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한국논단』, pp.117,131.
- 山田朗(2010.2) 「『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上) 『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 pp.60,65.
- _____ (2010.3) 「『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下) 『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 p.62.
- 本多勝一(2010.3) 「司馬遼太郎の『坂の上の雲』と朝鮮半島」 『週刊金曜日』, 金曜日, p.37.
- 山内昌之(2009.12) 「司馬さんはなぜ『坂の上の雲』を書いたのか」 『文芸春秋』, 文芸春秋社, p.278.
- 鷺田小弥太(2004.10) 「司馬史観が独り歩きを始めている」 『サピオ(Sapio)』, 小学館, p.21.

要 旨

本稿は、『坂の上の雲』を中心に、司馬遼太郎の日清・日露戦争に関する認識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司馬は明治期の日清・日露戦争を国家の存亡のために全ての国民が参加した「国民戦争」という表現で朝鮮を領有するための侵略戦争であることを美化している。また、ロシアの南下政策に対して日本の安危のために必要であったという「祖国防衛戦争」の叙述で戦争の正当性を表している。さらに、地政学的な観点で朝鮮の地理的な位置を説明しながら植民地に転落させた当時の状況について日本の国家発展のためだという行為の必然性を主張している。このように日清・日露戦争が侵略戦争であることを否認してその合理性だけを表現するのは、日本近代国家が敗戦国家と認識されているのを戦勝国家に転換させようとする司馬の意図と見なされる。なお、作者が『坂の上の雲』で明治国家を国民国家に賞揚しながら日本人の民族性を鼓吹させているのは、戦前の皇国史観を国民史観に表そうとする目的意識によることだと思う。しかし、日清・日露戦争の争点になった朝鮮の問題を日本の防衛戦争という当為性や妥当性などを証明するために引用しているのは司馬の自国中心的な歴史観といえる。したがって、今までこのような司馬史観についての様々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が、今後も継続的な関心が必要だ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日清・日露戦争、国民戦争、祖国防衛戦争、地政学的な観点、国民史観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